



"아무도 남지 않았다"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로힝야족을
겨냥한 폭력과 사망

목 차

01	서론	5
02	"사람들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 수천 명의 죽음	8
2.1.	급증한 사망률	8
2.2.	"수많은 시신을 보았습니다" - 죽음의 목적	10
03	"군중이 무차별 총격을 당했습니다" - 광범위한 폭력	11
3.1.	배경	11
3.2.	극도의 폭력	11
3.3.	폭력의 유형	12
04	"모두가 표적이었습니다" - 무차별적인 폭력	16
4.1.	성별을 가리지 않는 폭력	16
4.2.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17
4.3.	"이곳이 더 안전합니다" - 폭력의 장소	17
05	"모두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 광범위한 성폭력	18
06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 귀향의 공포	22
07	결론	23
08	부록 1: 방법론	25
	정량적 분석	25
	정성적 분석	26

CREDITS

표지 사진: ©Moises Saman / Magnum photos for MSF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인근 난민캠프로 가려고 통행 허가를 기다리는 로힝야 난민들이 장맛비를 피해 있을 곳을 찾고 있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곳은 논인데 방글라데시 국경 수비대는 난민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Art Direction & Design: Atomodesign.nl

© 2018 Médecins Sans Frontières

서론

2017년 8월 25일 새벽, 미얀마 군은 국경 수비대 전 초기지에 대한 로힝야 무장단체의 조직적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 하에 라카인 주에서 “소탕 작전”을 시작했다.¹

이 공격으로 약 68만 8천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라카인 주를 탈출해 인접한 방글라데시로 도망쳤다. 이들 대부분이 로힝야족이었다.² 난민 발생의 속도와 규모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로 이어질 만큼 심각했다. 이 공격 이전 미얀마를 탈출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로힝야족의 수는 90만 명을 넘어섰다.³ 이들 대부분은 콕스 바자르 지역의 기존 난민캠프와 임시 정착지를 증설한 시설이나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선 신규 정착지, 인근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이후 라카인 주 여러 지역에서 온 수많은 난민들은 가옥과 마을 습격, 임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총격,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은 친척이나 이웃, 탈출하는 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시신들, 광범위한 파괴와 성폭력 등 로힝야족을 겨냥한 만연한 폭력에 대해 국경없는의사회에 말해주었다.

2017년 11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당시까지의 사망률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추산하여 긴급 상황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콕스 바자르 지역에서 6 차례에 걸쳐 보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⁴ 조사 결과 로힝야족이 표적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7년 8월 25일에 시작된 광범위한 폭력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들의 탈출 상황과 이들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최근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증언을 수집해 왔다.⁵

국경없는의사회 추산에 따르면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미얀마에서 최소 9,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최소 6,700명은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다. 5세 미만 아동도 최소 730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된다.⁶ 사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준 것이 피난의 규모와 속도였다면, 국경없는의사회의 사망률 데이터는 2017년 8월 25일 이후 몇 달간 폭력이 유례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는 라카인 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인하고,⁷ 이른바 소탕 작전이 초래한 사상자 수를 축소하는 미얀마 당국의 공식 발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⁸

1 Clearance operation (미얀마 당국이 경한 작전명)

2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 ‘인터섹터 코디네이션 그룹’(ISCG), <실태 업데이트: 로힝야 난민 위기, 2018년 2월 11일>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ystem/files/documents/files/180211_weeklyiscg_sitrep_final.pdf

3 위와 동일

4 자세한 정보는 부록의 방법론 및 보건 설문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라. 보건 설문조사 보고서 링크: http://www.msf.org/sites/msf.org/files/coxsabazar_healthsurveyreport_dec2017_final1.pdf, <http://www.msf.org/sites/msf.org/files/report-rohingyas-emergency-17-vf1.pdf>

5 이 보고서는 2017년 8월부터 수집한 81건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의 방법론을 참조하라.

6 이 설문조사는 최근 대규모 피난 기간에 미얀마 라카인 주를 떠나 방글라데시에 들어온 로힝야족 50만 3,698명을 대표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8월 25일~9월 24일에 전체의 2.26%가 사망했다. 이 수치를 전체 모집단에 대입하면, 폭력사태가 시작된 후 첫 한 달간 최소 9,400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했고 그중 5세 미만 아동이 최소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조사결과를

신뢰구간(상위 신뢰구간일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진다)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추정 사망자의 수는 9,425명~1만 3,759명이고 그중 5세 미만 아동은 1,008명~2,896명이다. 이 중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759명~9,867명이고 5세 미만 아동은 734명~2,109명이다.

7 8월 25일 공격에 대한 미얀마 군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미얀마 국방부 감찰관에게 주도한 조사결과와 함께 타트마도 트루 뉴스(Tatmadaw True News) 정보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도 참조하라. 성명서 링크: https://web.facebook.com/search/top/?q=Tatmadaw+True+News+Information+Team&_rdc=1&_rdr 또한 ‘휴먼라이츠 와치’의 2017년 11월 14일 보고서 <버마: 인종청소 은폐하는 군 보고서—로힝야 경의를 위한 국제 조사, 책임이 필요하다>도 참고하라. 보고서 링크: <https://www.hrw.org/news/2017/11/14/burma-army-report-whitewashes-ethnic-cleansing>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치료한 부상자들과 새로 도착한 난민들의 증언과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실시한 보건 설문조사 결과, 미얀마 보안군과 그 동맹 집단들, 그리고 라카인 폭력집단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로힝야족을 겨냥해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폭력적 탄압은 미얀마 내 로힝야 인구의 높은 사망률을 초래했고 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11월 국경없는의사회가 콕스바자르 지역에서 실시한 6차례의 보건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환자·보호자 증언을 비롯해 2017년 8월부터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한 증언들의 정성적 분석으로 보완되었다. 조사결과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의료 소견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쿠투팔롱 진료소의 의료 기록,⁹ 환자들이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의사, 간호사, 조산사들에게 해준 증언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보건 설문조사와 증언 수집에 사용된 방법론은 이 보고서 부록에 상술되어 있다.

8 “[...] 미얀마 정부는 현재까지 약 400명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고 말한다.” 영국 가디언 지 2017년 9월 6일자 보도 참조. 링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7/sep/06/who-are-the-rohingya-and-what-is-happening-in-myanmar>

9 국경없는의사회는 2009년부터 쿠투팔롱 진료소를 중심으로 콕스 바자르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대규모 난민 유입이 시작된 이래 총상을 비롯해 폭력 부

상을 입은 환자 대부분은 물론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치료한 성폭력 생존자 대부분이 이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난민 유입 첫 달에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의료시설이 쿠투팔롱 진료소였기 때문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10월 말 이후 이 지역에 추가로 여러 의료시설을 열었지만 이 보고서에는 쿠투팔롱 진료소 환자들의 의료 기록만 반영되어 있다.

야신 타라(Yassin Tara, 20세)와 생후 10개월 된 딸 아스마(Asma)는 2017년 9월부터 방글라데시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다. 누군가 타라의 식량과 식기를 훔쳐가서 그렇잖아도 궁핍한 가정이 더 기댈 곳 없이 힘들어졌다. 타라는 없어진 식기들을 대신해 낡은 그릇들을 샀다. 식구들 끼니 준비를 위해 타라는 낡은 냄비들을 깨끗하게 닦는다. 남편은 일거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딸은 폐렴에 걸려 열이 높다. 타라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미얀마 고향 마을에서 타라는 소 3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미얀마 군이 집을 태워버리고 가족을 훔쳐갔다고 한다.



“사람들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 수천 명의 죽음

02

2017년 8월 25일 이후 발생한 피난의 속도와 규모로 국제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지만, 사실상 모든 독립적 인도주의 단체들의 라카인 주 접근이 불가능해지면서 8월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국경없는의사회 사망률 데이터는 2017년 8월 25일부터 폭력이 극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국경없는의사회 추산에 따르면 8월 25일~9월 24일에 최소 9,400명이 미얀마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5세 미만 아동 최소 730명을 포함해 최소 6,700명이 폭력으로 사망했다.¹⁰

2.1 급증한 사망률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의 사망률은 같은 해 5월 27일~8월 24일의 사망률보다 13배 이상 높았다.¹¹ 8월 25일 이후의 폭력 관련 사망률은 라카인 주에서 로힝야족을 겨냥해 과도한 무력이 사용되었음을 역설한다. 8월 25일~9월 24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망자의 71.7%가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¹² 8월 25일 이후 열흘 동안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보

고된 전체 사망자의 43.8%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¹³

국경없는의사회 환자들과 다른 난민들의 증언도 특히 초기 몇 주 동안 벌어진 진압의 잔혹성을 확인해준다. 이 증언들은 가옥 습격, 방화, 성폭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폭력, 과도한 무력 사용, 초사법적 처형, 무차별적 총격, 무차별적 마을 주민 살해 등 유사한 유형의 만행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 집이 불에 타버렸어요. 다른 집들도 모두 탔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은 벌목용 칼을 들고 군에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지만 군인들이 이들에게 총을 쏘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나는 너무 늙어서, 할 수만 있다면 안 떠나고 싶었어요. [...] 여기까지 오는 데 13일이 걸렸어요. 길을 떠난 지 14일째인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딸과 함께 왔어요. 부티다웅에서 마웅다웅을 거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본 시신만 최소 300구는 됩니다. 모두 무참하게 살육 당했어요. 대저택을 비롯해서 모든 마을이 불에 타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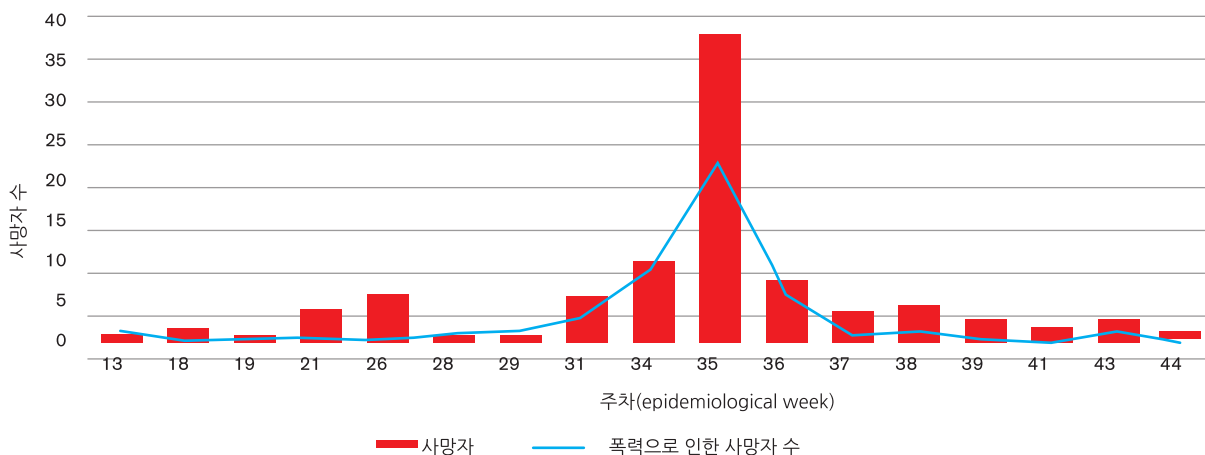
- 부티다웅 타운십, 타웅 바자르에서 온 65세 여성, 2017년 9월 11일

10 6차례의 사망률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입해 얻은 수치.

11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12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 전 지역에서 조사한 모든 난민 중 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된 사망자 수의 가중 평균.

13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 쿠투팔롱, 발루크할리에 최근 유입된 난민들에게서 들은 사망 원인 및 시기에 따른 사망률 분포

최근 피난 온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발생한 폭력 관련 사망의 주 원인은 총상(69.4%)으로,¹⁴ 이 중에는 5세 미만 아동(59.1%)도 포함되어 있다.¹⁵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 중 8.8%는 집 안에서 불에 타 죽었다. 폭력으로 숨진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방화로 인한 사망이 14.8%였다.¹⁶ 8월 25일부터 9월 24일 기간에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5%는 구타에 의한 것이었다.¹⁷ 기타 사망을 초래한 폭력의 유형으로는 성폭력(2.6%)¹⁸과 지뢰(1%)¹⁹가 있다. 그 외에도 폭력으로 인한 사망의 12.3%는 “기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쿠투팔롱과 발루크할리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난민들이 “군에 살해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더 이상의 추가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발루크할리 2와 타스니마르콜라에서 조사에 응한 난민들은 “목이 잘려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술했다.²⁰

국경없는의사회에 증언한 난민들은 주로 사망자 수가 대규모였다고 이야기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해 진술했다. 대량학살을 비롯한 살육에 대한 증언이 많았다.

“그들이 제 남편과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 공격으로 약 60명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그 후

에 군은 땅에 판 커다란 구덩이에 시신을 던졌습니다.”

- 부티다웅 타운십 디 프랑/세인 나인 프야에서 온 여성, 2017년 11월 26일

가족 또는 이웃이 집에서 불타 죽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제 어머니는 도망치지 못하고 집 안에서 불길에 휩싸였어요. 저는 간신히 생후 20일 된 아기만 끌어안고 도망쳤지요.”

- 라테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9월 13일

“군이 집과 모스크를 불태우고 있어요. [...] 제 갓난아기가 집 안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요. 마을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10월 21일

14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쿠투팔롱, 발루크할리에 새로 도착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폭력 관련 사망자의 69%. 발루크할리 2와 타스니마르콜라에서 조사한 인구 중 폭력 관련 사망자 총 수의 68.7%가 총상이었음).

15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16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쿠투팔롱, 발루크할리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자기 집에서 불타 죽은 사람은 폭력으로 인한 총 사망자의 11.9%를 차지한다.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이 수치가 20%까지 올라간다.

17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구타에 의한 사망자 수는 폭력 관련 총 사망자의 19.5%에 이르며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26.1%에 달한다.

18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19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폭력 관련 사망자의 3.6%가 지뢰로 사망했다.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관련 정보는 없다.

20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참수당한 사람의 수는 전체 폭력 관련 사망자의 1.5%이다.

	전체 인구	5세 미만
폭력 (총 사망자의 %)	71.7 %	72.8 %
폭력의 종류		
구타	5.0 %	6.9 %
성폭력	2.6 %	0.0 %
총격	69.4 %	59.1 %
가옥 방화	8.8 %	14.8 %
지뢰	1.0 %	2.3 %
구금/납치	0.3 %	0.0 %
참수	0.2 %	0.0 %
원인 미상	0.4 %	2.3 %
기타	12.31 %	14.8 %

2017년 8월 25일 이후 숨진 사람 대부분은 미얀마의 자기 집,²¹ 미얀마 내의 자기 마을,²² 또는 방글라데시로 오는 여정 중에²³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5일 직후 한 달간 폭력이 특히 심각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되었다. 9월 25일부터 회고 기간 종료(2017년 10월 30일~11월 12일) 때까지 보고된 사망 원인의 11.1%가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²⁴ 새로 도착한 난민들의 증언도 라카인 주 전역에서 10월~11월에 무차별적인 주민 살해 등 폭력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폭력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떠난 날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 우리는 길을 떠난 지 12일 만인 오늘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남성, 2017년 10월 19일

2.2 “수많은 시신을 목격했습니다”

- 죽음의 목격

“나를 내내 언덕과 들판과 강을 지나서 걸었습니다. 불타 버린 여러 마을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시신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아이들이 시체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아이들 앞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 부티다웅 타운십 누아 파라/이와르 텃에서 온 남성, 2017년 10월 29일

많은 난민들이 국경까지 오는 길에 시신을 목격했으며, 때로는 목격한 시신이 수십 구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난민들에게서 이러한 증언이 많이 나왔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방글라데시 국경까지 도보로 최소 7일 걸릴 정도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직접 시신을 물어주고 왔다는 난민들도 있었다.

“군이 떠난 다음 마을 주민들과 남편이 시신 20구를 한 무덤에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 마을을 떠났지요.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2주가 걸렸는데 일주일 정도는 언덕을 넘어서 걸었어요. 어떤 언덕은 온통 시신이었어요. 시신이 40구는 넘게있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9월 11일

방글라데시로 오는 길에 참수된 시신, 또는 신체 일부분만 남은 모습을 목격했다는 난민들도 있었다. 불에 타고 있는 시신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마을 옆에 불타고 있는 집들을 봤어요.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은 방글라데시로 왔어요. [...] 오는 길에 수많은 시신을 목격했는데 목이 잘린 시신이 많았어요. 심지어 여성들도요.”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40세 여성, 2017년 10월 21일

“오는 길에 시신들을 봤어요. 목이 잘려 있었어요. 강에는 신체 일부들이 보였어요. 마을들을 지나가는데 불탄 시신 냄새도 났어요. 벌써 두 달째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 라테다웅 타운십 조에 파랑/프엣 레이크에서 온 남성, 2017년 11월 4일

“그들은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토막 내고 남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신을 다 모아 불에 던졌어요. 일이 벌어진 곳이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전부 다 봤어요.”

- 부티다웅 타운십 라 바 다웅/파 란 치에서 온 여성, 2017년 11월 26일

21 쿠투팔롱, 발루크할리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의 39.7%가 미얀마의 자기 집에서 죽었다.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에서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22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자기 마을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전체 사망자의 71.4%에 이른다. 쿠투팔롱, 발루크할리에 대한 정보는 없다.

23 쿠투팔롱, 발루크할리에서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8월 25일~9월 24일 사망자 중 41.3%가 방글라데시로 오는 중에 죽었다.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에서 조사한 인구 중 8월 25일부터 회고 기간 종료 사이에 보고된 사망자의 10.7%가 미얀마 국경 안쪽, 6%가 방글라데시 쪽에서 발생했다.

24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군중이 무차별 총격을 당했습니다”

- 광범위한 폭력

“우리는 항상 미얀마 당국에게 고문을 받아왔지만, 이 드(6월 25일, 이슬람 명절) 이후로는 집에 있지도,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군인들로부터 두 딸을 지키느라 이렇게 오랫동안 정글에 숨어 지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미얀마를 떠나야 했죠.”

- 마웅다우 타운십 짜야 마웅/쥔 파옥 퓨 수에서 온 30세 여성, 2017년 8월 16일

3.1. 배경

역사적으로 미얀마의 로힝야족은 법적으로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뿌리 깊은 차별과 탄압을 받아 왔으며 이 때문에 오랫동안 라카인 주 전역과 주변국들로 떠돌았다. 2016년 10월, 미얀마 군은 표면상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ARSA)의 경찰 초소, 군부대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작전을 개시했다. 이후 수많은 로힝야족이 살해당했고 다수가 방글라데시로 도망쳤다.

한동안 라카인 주 상황은 긴장 속에 요동쳤다. 국경없는의사회를 치료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2017년 8월 25일 전에도 마을이 공격을 받았고 5월 이후부터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미얀마 당국의 보안 작전이 강화되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25일부터 면담일 사이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평균 3.7건의 폭력 사건을 겪었다.²⁵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종합해 볼 때, 라카인 주의 로힝야족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2월 25일~8월 24일에 라카인 주에서 보고된 사망자의 28%가 폭력에 의한 것이었을 정도로 이 기간동안에도 이미 폭력으로 인한 영향이 심각했

다.²⁶ 국경없는의사회 환자들의 증언도 2017년 8월 25일 이전에 반복적인 폭력 사건들이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3.2. 극도의 폭력

“보름에 한 번씩 군인들이 왔어요. 집에 쳐들어와 남자들을 구타하고 소녀들을 강간하기도 했어요. 전에는 마을에 오면 예쁜 소녀들만 데려갔는데 이제는 나이든 여성, 어린 소녀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강간합니다. 우릴 고문했어요.”

- 마웅다우 타운십 잔세 바웅/쥔 티 핀에서 온 여성, 2017년 10월 22일

국경없는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피난민이 된 인구의 최소 21.5%가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폭력을 경험했다. 최근 도착한 난민들이 미얀마에서 겪은 폭력 사건의 절대 다수(84.8%)가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 사건의 급증은 8월 25일 이후 라카인 주에서 폭력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난민 유입이 시작된 이래 국경없는의사회의 쿠투팔롱 진료소²⁷에서 폭력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은 224명의 환자들²⁸중, 29%가 난민 유입 첫 2주 내에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 찾아왔다.²⁹ 최근 난민 유입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에 맨 처음 도착한 난민들은 ARSA의 8월 25일 공격이 있었다는 마웅다우 타운십 국경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방글라데시 국경이 가까웠던 덕분에 이들은 신속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2017년 9월 초가 되자 국경까지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내륙 쪽 마을들에서도 난민들이 오기 시작했다.

25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26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27 국경없는의사회의 쿠투팔롱 진료소는 2009년부터 운영돼 왔고, 2017년 8월 난민 유입 초창기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유일한 국경없는의사회 시설이었다. 보고서를 작성 중인 현재,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시설이 곳곳에 새로 마련되어 폭력 관련 부상을 치료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쿠투팔롱 진료소 환자들의 의료 기록만 포함되어 있다.

28 이 수치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쿠투팔롱 진료소에서 폭력으로 인한 부상 치료를 받은 로힝야 난민들의 숫자만 반영한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폭력 관련 부상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내 현지 주민들에게도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9 이 데이터는 34주차와 35주차, 즉 2017년 8월 21일~9월 3일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10월 라카인 주 폭력 사태 발발 이후 치료한 환자와 비교해볼 때, 이번에는 최근 1~2일에 당한 것 등 부상 시기가 더 최근이에요. 지난해와는 달라요.”³⁰ 지난해에는 폭력 사건 이후 몇 주, 심지어 몇 달 후에 온 환자들이었거든요.”

- 쿠투팔롱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책임자, 2017년 8월 28일

국경없는의사회의 쿠투팔롱 진료소를 찾는 총상 환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9월 25일이 지나서였다. 이는 한달 내내 폭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은 10월 말 이후에도 쿠투팔롱 진료소와 새로 문을 연 의료시설들에서 폭력 관련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계속 진료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총상 환자이지만 대부분 후속 치료를 요하는 오래된 부상들이다.

3.3. 폭력의 유형

“밤새도록 총격이 계속되었고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날이 밝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에 저항하는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제 형제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무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은 잠시 사라졌다가 더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돌아와서는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 형제들 중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헬리콥터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떠날 때까지도 멈추지 않더군요. 우리는 모두 들판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도망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 마웅다우 타운십 볼리바자르/디올 툴리에서 온 23세 남성, 2017년 8월 30일

최근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남녀 난민들이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경험한 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총상(76.2%)과 구타(60%)였다.³¹ 난민 유입이 시작된 이래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치료한 폭력 관련 부상은 총상, 폭발로 인한 부상, 화상, 둔기에 의한 외상, 타박상, 골절 등이다. 2017년 8월 21일³²~12월 3일에 국경없는의사회 쿠투팔롱 진료소에서 폭력 관련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난민 224명 중

163명이 총상 환자였다.³³

“이곳에서 일한 8년 동안 목격한 것 중 최악이에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상 환자들은 등에 총을 맞은 경우가 많았어요.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수집한 증언,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총에 맞았다는 증언과 일치하는 거죠.”

- 쿠투팔롱 진료소의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책임자

국경없는의사회에 증언을 제공한 난민 대부분이 직접 총격에 노출되었거나³⁴ 이를 목격했다. 대부분의 총격 사건은 마을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졌고, 가옥을 직접 겨냥한 경우 혹은 도망치다가 총에 맞은 사람들에게 대한 증언도 있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산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겨냥해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땅에 엎드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까지요.”

- 라테다웅 타운십 조에 파랑/프렛 레이크에서 온 남성, 2017년 11월 4일

난민들의 증언에는 물리적 폭력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부분이 구타와 자상이었고 그중 일부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집으로 끌고 가서는 칼로 찌르고 구타했습니다. 못 버티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군인이 내 목과 턱을 칼로 찔렀습니다. 한 명은 제 손을 때렸는데 뭘로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마웅다우 타운십 툴라 툴리/민 치 이와에서 온 35세 여성, 2017년 9월 14일

30 미얀마 군에 의한 소탕작전 이후 2016년 10월에 발생한 로힝야난민 대량 유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미얀마 경비대 9명이 사망한 라카인 주 북부의 국경 수비 경찰(Border Guard Police, BGP)에 대한 일련의 무장 공격에 대한 대응이 명분이었고, 이로 인해 BGP와 군의 합동작전이 시행되는 동안 이 지역 전체가 전면 봉쇄되었다.

31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32 34주차에서 48주차.

33 이 수치에는 해당 기간 동안 폭력 관련 부상으로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치료를 받은 현지 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4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총상 치료를 받은 환자(또는 보호자)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모그(mogh)³⁵들이 자주 마을에 와서 소녀들을 데려갑니다. 저항하면 고문해요. 많은 여성들이 고문을 당해요 (성폭력을 지칭함³⁶). 이웃들 중에도 최소 네다섯 명이 당했어요. 저는 좀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마을에서 고문당한 여성들이 많지만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미혼이라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테니까요.”

- 마웅다우 타운십 메이 톨라/민 홀루트에서 온 여성, 2017년 8월 30일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기타” 유형의 폭력(28.1%)을 당했다고 답한 난민 대다수가 집이 불탔거나(전체의 8.5%), 타인이 총에 맞는 것을 목격했거나(2.2%),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고(1.4%) 말했다. 기타 폭력의 유형으로는 구타를 목격 또는 경험한 경우, 그 밖에 구금 또는 납치가 있었다.³⁷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수집한 증언 내용은 방화³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많은 난민들이 자신들의 집이 불에 탔거나 다른 집과 마을에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했거나, 방글라데시로 오는 길에 불타 버린 마을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우리 마을 집들에 군인들이 불을 지르기 시작해서 이틀 뒤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군인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는데 집들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떠났습니다. 동물을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바다로 향하는 길에 본 마을들이 전부 불타고 있었습니다.”

- 부티다웅 타운십 루당 파라/와 라 쏜에서 온 26세 여성, 2017년 9월 10일

“다른” 곳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난민 중 일부는 “국경 수비 경찰 부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진술했다. 응답자들에게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대들의 위치 및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제 아들은 두 번이나 군부대에 가서 무보수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갔다가 돌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또 데려가서 이틀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³⁹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10월 19일

국경없는의사회 환자들과 난민들의 증언은 종종 “부대” 또는 “군부대”라고 불리는 곳에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보고들과 일치한다. 남성들과 소년들을 끌고 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증언뿐만 아니라 실종에 대한 보고도 많았다.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난민들은 대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성적 폭력과 착취가 이유라고 주장했다.⁴⁰ 실종 및 자의적 구금도 많이 보고되었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지만 여성과 아동의 실종도 보고되었다.

“공격과 군에 의한 학살이 있기 전에, 경찰이 와서 마을을 수색하고 단지 집 안에 벌목용 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슬림들을 연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칼을 사용하는 건 숲에서 나무를 벨 때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죽었는지 계속 수감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마웅다우 타운십 톨라 톨리/민 치 이와에서 온 22세 남성, 2017년 9월 20일

35 로힝야인들이 비무슬림 라카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비하적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

36 난민들은 “고문”이라는 용어를 신체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폭력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일관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속되는 조직적 폭력 및 약탈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조1항의 정의에 해당하는 고문이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증언 수집 작업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37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38 피해를 가할 의도로 건물, 부지, 또는 기타 사유재산에 의도적, 고의적, 악의적으로 불을 놓는 행위.

39 면담 자리에는 피면담인의 아들도 있었다. 그는 “땅을 파고”, “모를 심는” 강제노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40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라.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가기 위해 나프 강을 건너고 있다. 2017년 10월 초 8 일 동안 매그넘 소속 사진가 모이세스 사먼은 미얀마 북부 라카인 주의 인종차별 폭력을 피해 수 만 명이 탈출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지역을 취재했다. 현지에서 서둘러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동안, 벌써 몇 년째 그곳에 있었던 난민캠프들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두가 표적이었습니다”

- 무차별적인 폭력

“처음에 군인들은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구타 당하고, 총에 맞고 칼에 찔렸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여러 명씩 이집 저집으로 끌고 갔어요. 저도 다른 일꾼 명과 함께 한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 마웅다우 타운십 툴라 톨리/민 치 이와에서 온 18세 여성, 2017년 9월 20일

2017년 8월 25일 이후 첫 48시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시설에 도착한 환자들은 5세 미만 아동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다. 8월 27일부터는 여성, 아동, 노인 부상자들도 오기 시작했다.

4.1 성별을 가리지 않는 폭력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로힝야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발생한 남성 사망자의 75%, 여성 사망자의 55.6%가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다.⁴¹

국경없는의사회 설문조사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정도로 폭력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피난을 떠난 남성의 28.4%, 여성의 23.3%가 폭력을 경험했다.⁴²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큰 성폭력에서만 주목할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뿐, 난민들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들의 증언들도 남성과 여성 모두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난민들의 증언은 미얀마에서 경험한 폭력의 유형과 정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남성과 소년들과 분리되어서 별도의 장소로 “끌려갔던”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증언이 특히 많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또한 구타와 같은 다른 유형의 물리적 폭력에도 노출되었다.

“8월 25일 밤에 집을 나왔습니다. 모그⁴³들이 저와 우리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제 등을 최대한 세게 때렸습니다. 지금도 걷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7살 먹은 제 아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다른 소년과 함께 아들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둘 다 살아남지 못했겠지요... 아이의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마웅다우 타운십 프와이라 바자르/카 몬 세이크에서 온 35세 남성, 2017년 8월 27일

국경없는의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인구와 비교할 때 남성·여성 모두 20~24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15~44세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적게 나타난다. 라카인 주 로힝야 인구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비율이 적은 이유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이 역사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최근의 사태를 반영하는 것인지, 또한 최근 위기 사태 이전의 인구 분포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난민 유입 발생 이래 취합된 증언들을 분석해보면 강제노동 목적의 수용, 구금, 집단 학살 등 남성만을 겨냥한 한 사건들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려면 이러한 증언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슬림들이 살해당한 다른 마을들에서 남자들이 일차 표적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하 반대편으로 헤엄쳐 가서 정글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도살당하고,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군이 툴라 톨리 마을 사람의 3분의 2를 죽였습니다.”

- 마웅다우 타운십 툴라 톨리/민 치 이와에서 온 22세 남성, 2017년 9월 20일

41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자료. 발루크할리 2, 타스니마르콜라의 경우 8월 25일~11월 12일에 발생한 남성 사망자의 82%, 여성 사망자의 68.2%가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42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43 로힝야인들이 비무슬림 라카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비하적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

4.2.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의 폭력은 연령과 무관하게 자행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5세 미만 아동 최소 730명이 폭력으로 사망했다고 추산한다. 8월 25일 이후 살해된 5세 미만 아동 약 730명 중 59.1%는 총상으로, 14.8%는 집 안에서 불에 타서, 6.9%는 맞아 죽었다.

노인 사망률 역시 매우 높았다. 50세 이상의 5.47%가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사망했는데⁴⁴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대다수였다.⁴⁵

8월 25일~9월 24일에 사망한 5세 미만 아동의 72.8%⁴⁶가 폭력에 의한 것일 정도로, 폭력으로 인한 사망은 아주 어린 연령을 비롯한 모든 연령에 영향을 미쳤다. 난민과 환자들의 증언들은 어린아이들이 특히 잔혹하게 살해당했음을 강조한다.

“여섯 아이를 잃었습니다. 딸 셋, 아들 셋이었어요. 막내는 생후 3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군을 피해 달아날 때 저는 제 아기와 비슷한 크기의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다른 죽은 아기였어요. 아기의 배가 난자당해 있었습니다.”

-마웅다우 타운십 툴라 툴리/민 치 이와에서 온 35세 여성, 2017년 9월 14일

“그들은 둔기로 제 아기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요. 아들의 두개골이 부서져서 뇌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아기를 잃었어요.”

-마웅다우 툴라 툴리/민 치 이와에서 온 25세 여성, 2017년 9월 16일

살아남은 아동과 노인도 폭력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5세 미만 아동의 15.3%와 5세 이상 인구의 22.6%가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폭력을

경험했다.⁴⁷ 난민 유입이 시작된 이래, 국경없는의사회 쿠투팔롱 진료소 의료진은 총상 환자 1명을 비롯해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6세 미만 아동 5명을 치료했다.⁴⁸ 또한 같은 진료소에서 18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37명도 치료했다. 그중 가장 어린 소녀는 9살이었다.

4.3. “이곳이 더 안전합니다”

- 폭력의 장소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폭력은 집(68.7%)이나 이동 중(62.8%)에 발생했다.⁴⁹ 또한 설문에 응한 난민들의 응답을 통해 일터(18.1%), 마을, 시장, 상점,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⁵⁰

“아들을 찾으러 집에 갔다가 갑자기 총에 맞았습니다. 총알이 제 왼쪽 다리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뚫고 나갔어요. 몇 초 후에 또 다른 총알이 반대편 다리로 들어와서 왼쪽 다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통했습니다.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총알은 (대나무로 만든) 집 벽을 뚫고 들어와서 제 다리를 관통했어요.”

-마웅다우 보사라/타 윈 차웅에서 온 40세 여성, 2017년 11월 6일

증언들을 분석한 결과 로힝야인들이 자신의 집과 마을을 비롯한 다수의 장소에서 폭력을 경험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증언은 북부 라카인 주의 주요 세 도시(마웅다우, 부티다웅, 라테다웅 전역의 여러 마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44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45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발생한 50세 이상 사망자의 81.3%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46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47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48 34주차~48주차.

49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50 쿠투팔롱, 발루크할리 지역 정보만 확인 가능.

“모두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 광범위한 성폭력

“3개월도 전부터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약 80~100명의 군인들이 집단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금을 빼앗아 가고 소녀들 몇몇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이든 여성에게 충을 쓰기도 했습니다. 소녀들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봤어요. 먼저 소녀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옷을 찢어서 돈이 있나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간했습니다. 예쁜 소녀들은 마을에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모릅니다. 풀려나거나 간신히 도망친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에도 그 소녀들 중 일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강간 이야기로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길 꺼리죠. 그들은 미혼인 데다 가난합니다. 강간당한 것이 알려지면 결혼하기 어려워지니까요.”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10월 22일

최근의 위기 사태 이전에도 로힝야 여성들과 소녀들은 미얀마에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던 2016년 군사 작전 기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7년 2월 소위 소탕작전이 종료된 이후 성폭력은 감소한 것으로 보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2017년 8월 25일 이래 국경없는의사회의 쿠투팔롱 진료소를 찾아온 성폭력 피해자 다수가 치료를 받으러 오기 수개월 전에 강간을 당했다.

“전에도 군이 와서 여자들을 데려가곤 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산이나 정글에서 여자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부대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여자에 대해 묻거나 저항하면 군인들은 즉시 이들을 죽였습니다. 예쁜 여자들을 데려가기도 했는데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11월 26일

국경없는의사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북부 라카인 주에서 로힝야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최근 피난을 떠난 여성 인구의 3.3%가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성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으며, 성폭력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성폭력은 잘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과소평가된 것일 수도 있다. 성폭력 사건은 97%가 방글라데시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했을 정도로 거의 절대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발생했다.

“예쁜 소녀들을 다 데려갔어요. 약 100명의 소녀들이 한꺼번에 끌려갔습니다. 제 조카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막으려 했다가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소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소녀들이 고문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드리긴 곤란하지만, 남자로서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했습니다. 너무약해져서 더 이상 견디 못하는 아이들도, 의식을 잃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 부티다웅 타운십 와리 영/세이 오 짜에서 온 남성, 2017년 11월 26일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8월 25일 이래 9~50세의 성-젠더 폭력 피해자 113명을 치료했다.⁵¹ 대부분이 강간 피해자이다. 최근 피난민이 된 로힝야 여성과 소녀들 중 다수가 2017년 8월~10월에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여러 가해자에게 당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떠나기 2주 전 밤에 군인들이 왔어요. 녹색 군복을 입고 군인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먼저 저를 덮쳤어요. 다음으로 8명인가 9명인가 모그⁵²들이 우리 집에 와서 또 저를 강간했습니다. 기절했기 때문에 몇 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소 세 명은 더 되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 다음에도 2~3일 간격으로 두 번 더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 마웅다우 타운십 메이 롤라/민 홀루트에서 온 18세 여성, 2017년 8월 30일

국경없는의사회의 치료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회고에 따르면, 여성과 소녀들이 “끌려가서” 보통 “부대” 또는 “군부대”라고 부르는 낯선 장소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군은 또 마을 별로 소녀 10명씩 부대로 같이 가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끌려간 소녀들은 12살~20살의 10대들이었어요.”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10월 19일

가해자 수에 대한 상세한 증언은 없지만 여성과 소녀들이 윤간을 당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개별적 가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간을 당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부대” 또는 기타 불명의 장소에 끌려간 후 여러 가해자들에게 또는 수차례에 걸쳐 강간당했다고 이야기한 강간 피해자 여러 명을 치료했다.

“군이 와서 집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여자들을 붙잡아가서는 강간하고 가슴을 뺨 다음에 죽였습니다.”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11월 26일

여러 난민들이 다수의 여성과 소녀들이 강간당한 것을 목격했다.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여성 가족 중 한 명이 강간당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아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군인 세 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집에 있으라고, 모스크에 갈 필요 없다고 하더니 제 남편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죽일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누우라고 했습니다. 제 상의를 벗기더니 남편과 아이들, 부모님 앞에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5시간 가까이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 명이 저를 강간했습니다. 한 시간이 걸렸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30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시간 반 동안 저를 강간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 마웅다우 타운십 찐세 바웅/찐 티 핀에서 온 여성, 2017년 10월 22일

2017년 11월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실시한 최근 도착한 피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성폭력이 사망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8월 25일~9월 24일에 최소 2.6%의 여성과 소녀가 성폭력으로 인해 또는 성폭력을 당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⁵³

“그들은 집들을 약탈하고 여성 3명(2명은 십대)을 강간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묻어 주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시신을 목격했습니다.”

- 부티다웅 타운십에서 온 여성, 2017년 8월 23일

2017년 8월 25일 이후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치료를 받은 강간 피해자들과 그 밖의 난민들의 증언을 보면,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난민들의 증언에는 강간을 당한 후 살해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 여자들을 고문했어요. 비명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시간 후 그들은 여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총성이 들렸습니다.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러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군은 그들에게까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 라테다웅 타운십 조에 파랑/프렛 레이크에서 온 남성, 2017년 11월 4일

51 이 수치는 방글라데시 현지 주민 중 성-젠더 폭력 피해자 약 10%를 포함하고 있다.

52 로힝야인들이 비무슬림 라카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비하적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

53 6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



2017년 8월 25일 폭력이 심화되면서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41만2천여 명의 로힝야인들이 탈출했다. 최근 로힝야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국경을 넘어 탈출한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에 더해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새로 도착한 난민들은 대부분 거처, 식량, 깨끗한 식수, 화장실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임시 정착지로 들어오고 있다. 마실 물을 거의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논이나 웅덩이, 손으로 판 얇은 우물에 고인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물들은 분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쿠투팔롱 진료소에서는 2017년 9월 6일~17일에 487명의 환자가 설사 질환 치료를 받았다. 정착지 안팎의 식량 공급 상황도 극도로 취약하다. 새로 도착한 난민들은 전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 물가는 급등하고,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로힝야 난민들을 구호하고 광범위한 공공보건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내 인도적 지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 귀향의 공포

2017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운치파랑 임시 정착지의 로HINGYA 난민들에게 추가로 215건의 증언을 수집했다. 거의 모든 증언자들이 **당분간 정착지에 남아 있기를 희망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길 원하는지 묻자 응답자 대다수는 남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 대부분은 미얀마보다 방글라데시가 더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방글라데시에 남는 것이 낫다고 답하거나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미얀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한 난민들도 있었다. 대부분 재산이 파괴되었다거나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또는 친척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야만 한다면 미얀마가 아니라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며 상실감과 한탄을 호소하면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얀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로HINGYA 족의 정체성과 시민권이 마련되거나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들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평화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요구사항의 수용”, 그리고 “이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엄청난 고통 끝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런 정의도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요청이다.

어떤 이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폭력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돌아갈 경우 살해를 당하거나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돌아가기 두렵다고만 말했다. 어떤 이들은 “미얀마로 돌아가라고 강요한다고 해도 우리는 가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몹시 불안할 테니까요. 당신들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 못해요.”라며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미얀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얀마 정부는 마치 배우 같아요. 거짓말을 일삼으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거나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허구일 뿐, 남은 우리(로HINGYA 족)를 몰살하려는 계획이 숨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토로하며 물었다. “우리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요?”

결론

미얀마의 로힝야족은 과거 수십 년간 법적으로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뿌리 깊은 차별과 탄압을 받아 왔고, 이는 이들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쳤다.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의 2017년 8월 25일 군경 초소 공격에 대한 대응을 표면에 내세운 잔혹한 진압은 이들의 고통을 유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심화시켰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 폭력사태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도록 내몰았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설문조사는 라카인 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첫 달 동안에 최소 9,400명이 사망하였으며 5세 미만 아동 최소 730명을 포함해 최소 6,700명이 살해당했음을 보여준다. 국경없는의사회 환자들과 기타 난민들의 증언은 상황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드러낸다. 국경없는의사회 설문조사의 방법론을 고려할 때, 총 사망자 수는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로힝야인들이 라카인 주에서 국제인권법상 광범위하고 중대한 유린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살인, 강간, 기타 유형의 성-젠더 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표적이 되어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폭력과 살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랫동안 라카인 주의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지켜봐 왔다. 폭력은 적극적 차별, 탄압, 토지 몰수, 살해, 마을과 생계의 광범위한 파괴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여러 독립단체들이 제시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력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군은 이러한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해도 이를 반복적으로 묵인 및 경시해 왔다. 미얀마와 교류하는 다른 나라 정부들은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처우는 외면하고, 소수자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를 평가할 실질적 메커니즘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대 미얀마 경제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로힝야족의 피난 속도와 규모가 국제사회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지만, 독립적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라카인 주 접근이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여 완전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라카인 주에 남아 있는 로힝야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2017년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폭력이 8월 25일 직후 한 달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난민들의 증언은 2017년 10월 내내 폭력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난민들과의 면담은 폭력, 뿌리 깊은 차별 정책과 관행, 인권 유린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미얀마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의 난민 귀향 협약 체결은 시기상조이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체결한 협약⁵⁴은 난민 귀향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위험을 인정하거나 보호 조치를 상술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준수를 저해하고 있다. 로힝야 난민들에게 미얀마귀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난민 귀향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전에 이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54 라카인 주 출신 피난민들의 귀향에 대한 방글라데시-미얀마 정부 협약, 2017년 11월 23일.

국경없는의사회의 방글라데시 활동 사항

국경없는의사회는 1985년부터 방글라데시에서 활동을 해 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09년부터 콕스 바자르 지역 쿠투팔롱 임시 정착지 인근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로힝야 난민들과 현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본 의료 및 긴급 의료를 지원하고, 입원 환자 지원과 검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콕스 바자르 지역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 인구를 위한 추가 의료시설과 식수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는 등 활동 영역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그 외에 수도 다카의 캄란기르 차르 슬럼에서도 정신건강 및 출산 관련 의료를 제공하고, 가족계획 상담과 산전 진료를 실시하며,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미얀마 활동 사항

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 보건체육부와 협력하면서 지난 25년간 HIV/AIDS 환자, 결핵 환자, 약제내성 결핵환자를 위한 1차 의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17년 8월 전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마웅다우 지역 여러 마을과 난민캠프에서 국내 난민들을 대상으로 4개의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1차 의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2017년 8월 25일 이후 진료소 4곳 중 3곳이 불타 버렸다. 시트웨 지역에서는 파옥타우, 시트웨 시, 기타 여러 라카인 마을의 난민캠프들에서 이동 진료소를 통해 1차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그 외에도 양곤, 산, 카친, 타닌타리의 HIV/결핵 프로그램과 친 주의 1차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록 1: 방법론

정량적 분석

국경없는의사회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의 여러 난민 정착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전문과 세부 방법론⁵⁵ 6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의 요약본⁵⁶은 국경없는의사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설문조사의 일차적 목표는 조사망률(조사 지역 1일 평균 인구1만 명당 사망률)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추산이었다. 설문조사는 또한 1) 연령, 성별, 가족구성 형태 등 인구 분포 파악, 2) 예방접종률파악, 3) 생후 6~59개월 영유아의 중증 및 급성 영양실조 유병률 파악, 4) 설문조사 전 2주 동안의 가장 심각한 질병 및 사망 요인 파악, 5) 1차·2차의료 접근성 측면에서의 보건 현황 파악, 6) 미얀마 내 위기 발생 후에 최근 유입된 피난민 인구 및 방글라데시 정착지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전체인구 및 5세 미만 아동의 조사망률 추산, 7)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주요 사망원인 파악, 8) 폭력 관련사건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6회 설문조사 중 4회는 주요 정착지인 쿠투팔롱과 발루크할리에서 2017년 10월 30일~11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쿠투팔롱 임시 정착지, 발루크할리 임시 정착지, 쿠투팔롱과 발루크할리 임시 정착지 확장 캠프에서 총 905가구를 표본으로 삼았으며 이는 총 4,627명을 대표한다.

나머지 2회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8일~12일에 발루크할리 2(구 마이네르고나), 타스니마르콜라(구 부르마파라)에서 추가로 실시된 것이다. 총 1,529가구를 면담조사했으며 이는 총 6,799명을 대표한다.

이 설문조사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피난 기간에 미얀마 라카인 주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로힝야족 50만 3,698명, 그리고 2017년 8월 25일 이전에 이미 방글라데시 정착지에 거주했던 로힝야족 10만 4,410명을 대표한다. 2017년 8월 25일 이후로 약 62만 6,000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조사는 2017년 11월까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새로 유입된 전체 난민의 80.4%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쿠투팔롱과 발루크할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25일부터 면담 실시일(2017년 10월 30일~11월 12일)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삼았고, 발루크할리 2와 타스니마르콜라에서는 2017년 5월 27일부터 조사 실시일(2017년 11월 8일~10일)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삼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이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참가를 거부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무보수로 참여했으며 참가에 따른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도 없음을 명확히 설명받았다.

55 http://www.msf.org/sites/msf.org/files/coxsabazar_healthsurvey_report_dec2017_final1.pdf, <http://www.msf.org/sites/msf.org/files/report-rohingyas-emergency-17-vf1.pdf>

56 <http://www.msf.org/en/article/myanmarbangladesh-rohingya-crisis-summary-findings-six-pooled-surveys>

정성적 분석

방글라데시의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 지원 팀은 국경없는의사회 환자·보호자 31명, 난민 50명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개별 반구조화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2명을 제외한 피면담자 전원이 2017년 8월 25일 이후에 방글라데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면담은 쿠투팔롱과 발루크할리 임시 정착지에서 2017년 8월 16일~11월 27일에 이루어졌다.

인구 밀도가 높은 정착지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몇몇 난민들은 가족이나 이웃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에 응했다. 이러한 경우 주요 면담 대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기타 참가자들의 발언은 기록지에 따로 기술하였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직원이 전문 통역사의 지원을 받아 피면담자의 모국어로 면담을 진행했다. 가능한 한 피면담자의 문화적 감수성을 존중하여 남성과 여성 면담자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인도적 지원 담당 직원이 현지어로 직접 면담을 실시한 후 영어로 번역한 경우도 있었다.

모든 응답자들에게 면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조사의 목적, 무보수로 진행된다는 점, 언제든지 면담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하거나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면담에 응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이 면담 조사는 의료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 면담이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시설에서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증언들에는 피면담자의 출신지역이 표시되어 있다. 북부 라카인 주의 마을들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마을이 소재한 타운십 정보와 함께 로힝야어와 라카인어 마을 이름을 모두 표기하였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마을 이름의 경우 출신 타운십 정보만 표기하였다.

추가 자료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의학 소견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의사, 간호사, 조산사들이 환자들에게서 받은 진술과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시설의 의료 기록도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09년부터 쿠투팔롱 진료소를 중심으로 콕스 바자르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쿠투팔롱 진료소는 대규모 피난민 유입이 시작된 첫 한 달간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운영하던 유일한 의료시설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물론 총상 환자를 비롯한 폭력 관련 부상자 대다수가 이 진료소를 거쳐 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10월 말부터 여러 의료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 보고서에는 국경없는의사회 쿠투팔롱 진료소 환자들의 의료 기록만 반영하였다.



MEDECINS SANS FRONTIERES

국경 없는 의사회
